

2019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논술고사 문제지 (인문계열 I)

모집단위	학부/학과	수험번호	성명
------	-------	------	----

◆ 유의 사항 ◆

1. 시험 시간은 100분임.
2. 답안은 검은색 펜이나 연필로 작성할 것.
3. 학교명, 성명 등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답안에는 드러내지 말 것.
4. 연습은 문제지 여백을 이용할 것.
5. 답안은 해당 문항 답안지에만 작성할 것.

감독확인



이화여자대학교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인간이 천사를 만난다면 그 천사를 향해 인간은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두이노의 비가』의 한 대목에서 던지고 있는 질문이다. 시인의 이 질문은 인간에 관한 인문학의 어떤 질문보다도 상큼하고 날씬하다. 인간은 천사가 아니고 천사는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천사가 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 그것이 인간의 자랑거리다.

천사가 그리워하면서도 결코 하지 못하는 일이 하나 있다. 그것은 죽는 일, 곧 유한성의 경험이다. 인간은 자신의 유한성을 알고 자신의 죽음을 애기하는 유일한 동물이다. 인간은 유한성의 존재이면서 유한성 너머의 세계를 상상하고 미래를 계획하며 기억과 상상을 융접한다. “다음 생에 태어나 내가 다시 산다면”과 같은 재탄생의 상상력은, 물론 불가능한 것에 대한 상상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한 그 상상력이 과거의 기억, 혹은 지나간 삶에 대한 성찰과 결합해 있다는 점이다. 기억과 상상의 이런 접합은 인간이 처한 유한한 조건으로부터 나오고, 그 조건 때문에 가능하다. 게다가 그 연속의 상상력 속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은 유한성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인한다. 천사에게라면 이런 성찰과 상상은 필요하지 않다.

기억과 사유, 상상과 표현은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독특한 능력들의 목록을 대표한다. 인간이 천사를 향해 자랑할 것도 결국은 그 네 가지 능력으로 집약된다. 인간은 기억하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표현하는 존재이다. 그 네 가지 능력의 어느 것도 완벽하지 않다. 기억은 수많은 구멍들을 갖고 있고 사유는 불안하다. 상상은 기억과 사유의 한계를 확장하지만 유한한 경험의 울타리를 아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표현의 형식과 내용도 시간성에 종속된다. 그러나 기억, 사유, 상상, 표현의 인간적 시도들은 그것들이 지닌 한계 때문에 무용해지는 것이 아니라 유한한 것들만이 가지는 순간적 아름다움의 광채를 포착하고 표현하기 때문에 위대하다. 기억이 완벽할 수 있다면 아무도 기억하기 위해 애쓰지 않을 것이며, 사유가 완전할 수 있다면 아무도 사유의 엄밀성을 이상화하지 않을 것이다. 지식의 한계 때문에 상상은 위대해지고, 표현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도전 때문에 표현은 아름다워진다.

[나] 영상을 녹화하고 재생하는 비디오 기술은 이제 ‘비디오크라시’라는 말까지 등장할 정도로 우리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고 있다. 그 비디오를 발명한 것은 미국인이었고, 그것을 가전제품으로 만들어 상업화한 것은 일본이었다. 하지만 그 비디오를 예술로 만든 것은 바로 한국인 백남준이다. ‘남준 파이크(Nam June Paik)’로 통하는 그는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로 현대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로 불린다.

과장이 아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예술과 기술의 두 세계를 넘나들면서 새 지평을 연 예술가가 백남준이다. 분야와 기법만이 아니다. 부처를 텔레비전 앞에 앉혀 놓은 그의 기발하고 폭넓은 창조성은 동과 서를 가로막고 있는 문명의 벽을 훌쩍 뛰어넘는다. 비디오 기술과 통신 위성을 이용한 공연인 「바이 바이 키플링」은 위성 매체를 이용해 대한민국, 일본, 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을 하나의 화면에 병치하여 ‘동양은 동양, 서양은 서양’이라고 노래한 키플링의 주장에 반박한다.

공간만이 아니다. 달을 가장 오래된 텔레비전이라고 말한 그는 실제로 텔레비전 모니터로 이태백이 놀던 달 모양과 그 달빛을 만들어 낸다. 그러한 시도는 멈추지를 않는다. 비어 있는 텔레비전 상자 안에 양초를 놓거나 자석으로 그 화상을 일그러뜨려 텔레비전 상자의 개념을 바꿔 버린다.

사실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가 나오기 전까지 모든 인간은 텔레비전 상자 앞에 앉아서 일방적으로 화면을 바라보기만 했다. 그런데 그가 텔레비전 모니터를 썬아 사람이나 로봇 모양을 만드는 순간 지금까지의 텔레비전 화면(畫面)은 안면(顔面)으로 바뀐다. 우리는 ‘매체’가 인간이 되는 해학적이면서도 언짢은 문명을 본다.

시인이 언어로 시를 쓰듯이 백남준은 텔레비전 모니터와 비디오 그리고 그밖에 모든 도구를 통해 시와 소설을 쓰고 드라마를 연출한다. 습관의 때와 판에 박힌 고정 관념을 부수고 해체하여 그 파편들을 모아 인간의 현실을 재구성한다. 그래서 그의 작업실은 고물상 창고와 다를 것이 없다. 현대 문명의 쓰레기 고물들을 융합하여 우주를 만들어 낸 그의 열정과 뒷심은 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열정으로 가득 차서 쓴 자신의 글에서, 소우주와 대우주 사이의 유사성에 천착했던 르네상스의 시대정신에 따라 회화에서 대지를 표현하는 것과 인간의 몸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유사한 것인지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고대인들은 인간의 몸을 세계의 축소판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매우 정확한 표현이다. 인간의 몸이 흙과 물, 그리고 불로 이루어져 있는 이상 그것은 대지를 닮았다고 할 수 있다.”

「모나리자」에서는 신비로운 유려함을 통해 풍경과 인물이 하나가 되고 있는데, 이는 “모든 것은 자신이 아닌 다른 무엇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므로, 세상의 어떤 것이든 다른 것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레오나르도의 확신과 일맥상통한다. 묘하게도 작품 속의 공간들은 하나로 일치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한 예로 이 작품을 보는 이는 그림 속 여인이 앉아 있는 의자를 쉽게 알아볼 수 없을 것이다. 레오나르도는 르네상스 화가들이 좋아했던 단선적인 원근법을 버리고, 그 자신이 ‘공기 중의 원근법’이라고 불렀던 독특한 투시법을 사용했다. 즉 경계선을 흐릿하게 하고 밝은 색을 사용함으로써 작품 속의 공간이 뒤로 물러나는 듯한 환상이 들게 한 것이다. 인물과 배경의 일체감은 레오나르도만의 독창적인 회화 방식에 의해 가능해졌다. 레오나르도 자신이 즐겨 사용했던 ‘스푸마토(sfumato)’라는 말은 이탈리아어로 ‘흐릿한’ 혹은 ‘자욱한’이란 뜻으로, 특별한 명암법, 즉 밝은 톤에서 점차 어두운 톤으로 변화시키면서 분명하지 않은 색을 제한적으로 사용해서 경계를 없애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사실상 그림에서 선을 찾아볼 수 없게 된다. 15세기 유화의 도입 덕택에 가능해진 이 방식은 레오나르도에 의해 한층 더 발전하게 된다. 그는 “경계선은 사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다……. 화가여! 뚜렷한 선으로 대상의 경계를 짓지 마시라.”라고 말했다. 「모나리자」가 그 유명한 표정의 모호함과 유동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눈이나 입 주변에서 딱딱한 경계를 지우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렸기 때문이다.

[라] 「몽유도원도」에는 우리 옛 그림의 원근법이 갖는 장점이 잘 드러나 있다. 작품을 보면, 첫째, 깎아지른 높은 산을 아래서 위로 치켜다 본 시각(고원법)이 있고, 둘째, 엇비슷한 높이에서 뒷산을 깊게 비껴 본 시각(심원법)이 있고, 셋째, 높은 곳에서 아래쪽을 폭넓게 조망한 시각(평원법)도 있다. 그런데 옛 그림의 삼원법, 즉 고원, 심원, 평원의 다양한 시각이 어떻게 「몽유도원도」라는 한 화면 속에 무리 없이 소화되고 있는가? 그 점을 눈여겨보는 것이 사실 옛 산수화를 보는 큰 재미의 하나이다. 얼핏 생각하기에 하나의 시점이 아니라 다양한 시각이 뒤섞여 있으니 작품 전체가 매우 이상하게 보임 직한데, 오히려 옛 산수화를 보면 마음이 평온하기 그지없다. 작품을 보고 있노라면 보는 이의 시선은 그려진 대상의 제각각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떠돌며 옮겨 다니게 된다. 이를테면 깎아 세운 절벽은 아래쪽에서 쳐다보는 느낌을 주고, 넓은 평원은 자신이 그림 속의 높은 곳에 올라서 있는 느낌을 갖게 한다. 실제의 자연이 그렇듯이 작품 속의 산수가 여기저기 발걸음을 옮겨 놓을 수 있는 살아 있는 공간이 되는 것이다.

서양 입체파의 선구자인 피카소가 사물을 보는 자유롭고도 상상력 넘치는 시각을 이용해서 복합적인 화면을 구성함으로써 서양 회화사에 새로운 경지를 열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피카소의 작품은 종종 형상을 너무나 무리하게 왜곡하여 보는 이에게 대상의 객관성을 배제하고 주관 속의 일그러진 인상만을 보여 준다. 여기서 오는 어리둥절함을 신선하고 자극적이라고 평가하는 시각도 있지만, 우리 한국인에게는 아무래도 어딘가 편하지 않고 좀 지나치다 싶은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긴다. 나는 진정한 입체파의 모범은 오히려 우리의 옛 산수 그림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규모도 훨씬 크거니와 결코 자연의 사실성을 희생하거나 파괴하여 화가의 개인의식 속으로 환원 또는 침몰케 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다. 자연이라는 대상이 살아 있고, 그 대상에 반응하는 인간도 자연과 함께 존재하는 중용적인 세계관, 그것이 옛 그림 속의 삼원법이 재현하고자 하는 바이다. 그리하여 옛 그림 속의 산수는 보는 이로 하여금 대자연의 정기를 속속들이 추체험하게 하면서 보는 이의 마음에 크나큰 위안을 주는 것이다.

[마] 우리 집 동산에 복숭아나무가 있는데, 꽃빛은 보잘것없고 열매는 맛이 없고 가지도 부스럼이 나서 썩거나 잔가지가 한꺼번에 뺏어 나와서 볼 것이 없었다. 지난봄에 이웃에 사는 막 씨 성을 가진 사람의 손을 빌려서 홍도(紅桃) 가지를 접붙였다. 그런데 그 꽃이 아름답고 열매도 아주 곱았다.

나는 처음 한창 자라나고 있는 나무를 베어 내 버리고 작은 가지 하나에다 접목하는 것을 보고서 이것은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 뒤로 매일 밤마다 싹이 나고 비와 이슬에 자라서 눈이 트고 가지가 쪽쪽 뻗어 나갔다. 얼마 되지 않아서 울창하게 그늘을 이룰 만큼 자라나게 되었다. 금년 봄에 꽃과 잎이 많이 피고 붉고 파란 비단처럼 휘황찬란한 빛이 참으로 보기 드문 아름다운 경치였다.

아, 하나의 복숭아나무로 땅에서 흙을 바꾸지도 않고 뿌리를 파서 고쳐 심지도 않았다. 다만 접목으로 얻은 한가닥 기운으로 줄기가 되고 가지가 되고 꽃다운 꽃이 밖으로 피어나서 얼굴빛이 전혀 딴 것으로 변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눈을 닦고 다시 보게 하고 지나가는 자가 많아서 새로 길이 나게 되었다. 이런 기술을 가진 자는 그 조화의 기묘한 것을 아는 이라고 하겠다. 기이하고 기이하구나.

[바] Ever since comics first appeared, there have been people who have criticized them. In the 1940s and 50s, many people believed that comics were immoral and that they caused bad behavior among young people. Even today, many argue that reading comics encourages bad reading habits.

However, some educators nowadays see comics as a way to get teenagers to choose reading instead of watching television or playing video games. And because of the art, a number of educators have argued that comics are a great way to get children to think creatively. More recent research has suggested that the combination of visuals and text in comics may be one reason young people handle computers and related software so easily.

Professor Carol Tilley of Illinois University said that children benefit from reading them as much as they do from reading other kinds of books. She said, "A lot of the criticisms of comics come from people who think that kids are just looking at pictures and not putting them together with the words. But you could easily make some of the same criticisms of picture books that kids are just looking at pictures, and not at the words. Although they've long accepted picture books as appropriate children's literature, many adults quickly dismiss the usefulness of comics as books for young readers. Any book can be good and any book can be bad, to some extent. It's up to the reader's personality and ability. As a whole, comics are just another medium. And if you really consider how the pictures and words work together to tell a story, you can make the case that comics are just as complex as any other kind of literature." In fact, the combination of the pictures and words in comics can open up a new way of thinking.

1 제시문 [가]에 나타난 인간의 특징을 서술하고, 이를 토대로 [나]의 창작 활동의 의의를 밝히시오. [40점]

2 제시문 [다]와 [라]의 두 작품에서 보이는 예술 세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30점]

3 제시문 [마]의 화자의 관점으로 [바]에 대해 논하시오. [30점]